



GP USA : 미주본부 : Global Partners, 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USA ☎ 714.774.9191 윤재관, 헤미 email:  
jekwanyoon@gmail.com / haemiyoonyoon2001@gmail.com

얼마 전에 미성년자에게 ✉을 전하던 현지인  
청년이 경찰에 체포되고 그 청년과 연결되었던  
사람들도 경찰에 구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히도 다음 날 풀려나긴 했지만 조만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나라에서 이런 일로 실재  
재판이 벌어지는 일은 극히 드문일이고 이번일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곳이  
아랍의 봄을 지나며 아랍지역에서 가장 민주주의  
적인 나라로 그나마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곳으로  
조명 받기도 하지만 이슬람 국가로써의 정체성에  
도전되는 대부분의 움직임들은 문화, 사회적으로  
배척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일로 복음의 진보가 위축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히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손모읍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도전과 격려로  
그리고 또 한걸음 나아가는 헌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Ah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된지 불과  
몇개월 밖에 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가정의 불화 속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선함을 닮은 청년입니다.  
울초부터 함께 일하며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배울려는 노력과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Ah

형제에게, “너도 어렵게 자랐지만 내 안에서 끝나는  
천국이 아닌 다른이에게 까지 다다르고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성장해 가자”고 격려하며  
비전을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M 형제 역시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공부를  
포기했었지요. 최근에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며 일단 2개월간의 짧은 직업  
훈련을 시작하려 합니다. 힘겹게 시작한 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부분이 성숙되고 준비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건강하지 않은 이전의 경험들과 시간들로  
인해 형성된 너무 혼란스러운 자아로 안정적이지  
않은 그의 삶이지만 동시에 분명 그가 경험한 그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  
은혜가 그의 새 사람으로써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간구합니다.

BAM을 하며 매일 부딪히고 쏟아지는 고민들이  
있지만 감사히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를  
살아가며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합니다.

이곳에서 저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 점검하며  
다시 기준/기본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먼저  
은혜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께 붙들리어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구합니다.



3월9일부터 한달동안 이슬람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일은 짧게하고, 넉넉히 쉬고, 교제는  
많이 하고, 물론 종교적인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요. 축제가 아닐 수 없지요. 이들을 위해  
애통해 하면서도 동시에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 그럼  
영성과 삶의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3월 19일부터 4월 초까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파송단체 모임 참석차 방문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에서 필요고 유익한 만남과  
시간을 갖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4 년 3 월에 윤재관, 헤미 올림